

4 종합

제2기숙사 학식 오는 22일 영업 개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제2기숙사 학생 식당 운영 업체가 ‘푸드리스트’로 최종 확정됐다. 영업 시작일은 22일이다. 제2기숙사 측은 과거 발생한 위생 관련 논란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식사 품질 향상,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리스트는 사조그룹 계열의 급식업체로, 지난 8월 진행된 제2기숙사 식당 운영 업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낙찰돼 현재 식당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 조미희 대리는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제안서 발표 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이 최종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제2기숙사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다양한 식사 인원에 맞는 좌석을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줄 계획이다. 조 대리는 “기존에는 카드 단말기 형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키오스크를 2대 정도 도입할 것”이라며 “키오스크 결제 형태는 업체와 조율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블 배치는 1인 다이닝석, 4

인, 6인, 8인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셀프 라면 기계가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수제 샌드위치·샌드위치 등 간편식 예약 판매도 이뤄진다.

식당은 지난 9일부터 환경 개선 공사에 돌입했다. ▲벽면 도장 ▲셀프코너 ▲식기류 ▲홀 테이블·의자(10월 예정) ▲조리실 주방 기구 50%가 교체된다. 자율배식대는 신설되고, 직화·떡배기류를 위한 시설도 강화된다.

다만, 이전과 달리 주말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 조 대리는 “최근 5년간 평균 주말 이용 식수가 낮은 것을 고려해 운영 비용을 평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식사 품질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결정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존 학생 식당 점장, 조리 실장, 영양사, 조리사 등 주요 직책은 푸드리스트 측에서 채용한다. 조리원은 희망자에 한해 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 채용된다.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조 대리는 “과거 발생한 식사 품질 및 위생 관련 민원 사항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식사 품질 향상,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업체 ‘푸드리스트’가 제2기숙사 식당을 운영한다.

(사진=서민주 기자)



우리학교가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어 공동 프로젝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박 교수 제공)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MOU 학생들, AI 추천 알고리즘 도전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서울】 우리학교가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들에게는 공동 프로젝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세븐일레븐과의 협업은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4학년 전공 과목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운영되며, 박재홍(빅데이터응용학) 교수를 중심으로 1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면접이 방학 중에 진행됐고, 그 결과 33명의 지원자 중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중 한 명인 김지수(경영학 2021) 씨는 “경영학과지만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와 관련한 실무를 배우고 싶어 지원

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들의 목표는 AI를 활용한 편의점 물류 개선 및 추천 알고리즘 개발이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물류 선주문 시 도움을 주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보는 거다.

박 교수는 “편의점 점주들이 발주할 때 물류가 한정돼 있어 어떤 품목을 발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고객 물품 선호도 및 매장 간 유사도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AI 기반 무상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사내 회의를 거쳐 전국 점포 점주에게 상용화된다.

박 교수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빅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며 “타기업

들은 사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세븐일레븐 측에서 물류 영수증 데이터 등의 자료 제공을 흔쾌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지난 한 달간 프로젝트 진행에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 앞으로는 세븐일레븐 DX팀 관계자와 매주 화상회의로 만나며 알고리즘 개발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세븐일레븐은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세븐일레븐은 참가 학생 중 뛰어난 역량을 지닌 학생을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학생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